

보도시점 2024. 8. 7.(수) 12:00
(2024. 8. 8.(목) 조간)

배포 2024. 8. 7.(수) 09:00

국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

-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 혁신이 규제보다 중요”,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가장 많이 응답
- 8월부터 약 두 달간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5.21)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5.21~22)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하였다. 14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579명)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하였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 요약본(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단체)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인공지능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인공지능안전 지키미)’와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정윤수씨, 김황민·박세연·황성아씨(단체), 박예진씨의 정책제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에 있어 선제조건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아날로그 수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식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사회 공개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통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디지털전략팀	책임자	과 장	김남철 (044-202-6120))
		담당자	사무관	양윤아 (044-202-614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비고
❖ 투표기간			2024. 6. 12.~ 7. 5.(3주간)	
❖ 총투표자수			765명	
	▶ 성별	남	426명 (55.7%)	
		여	339명 (44.3%)	
	▶ 연령대	10대 이하	7명 (0.9%)	
		20대	185명 (24.2%)	
		30대	266명 (34.8%)	
		40대	220명 (28.8%)	
		50대	68명 (8.9%)	
		60대 이상	19명 (2.5%)	
	▶ 직업	학생	89명 (11.6%)	
		사무직	411명 (53.7%)	
		자영업	74명 (9.7%)	
		전문직	109명 (14.2%)	
		기타	82명 (10.7%)	

- 전체 응답자는 총 765명이며, 응답자 중 남자는 426명(55.7%), 여자는 339명(44.3%)임
-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66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20명(28.8%), 20대 185명(24.2%), 50대 68명(8.9%), 60대 이상 19명(2.5%), 10대 이하 7명(0.9%)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직업군은 사무직 411명(53.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109명(14.2%), 학생 89명(11.6%), 자영업 74명(9.7%)순으로 나타남

□ 문항별 투표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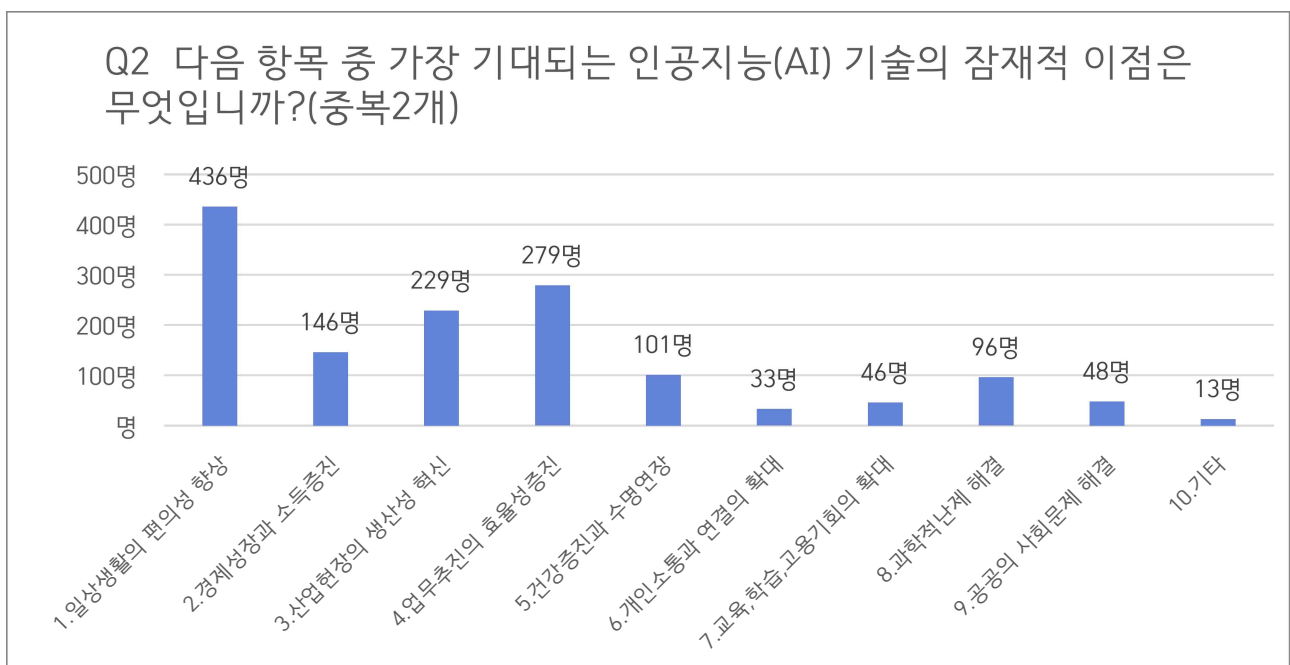
Q1 인공지능(AI) 기술이 잠재적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재적 위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비율	
1.잠재적 위험이 많다	74명	146명	9.7%	19.1%
2.잠재적 위험이 다소 많다	32명		4.2%	
3.잠재적 위험이 조금 많다.	40명		5.2%	
4.위험과 이점이 반반이다.	181명		23.7%	
5.잠재적 이점이 조금 많다.	152명	438명	19.9%	57.3%
6.잠재적 이점이 다소 많다.	186명		24.3%	
7.잠재적 이점이 많다.	100명		13.1%	
계	765명		100.0%	

- ‘인공지능(AI) 기술은 잠재위험과 잠재이점 중 어떤것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438명이(57.3%) 잠재이점이 많다고 응답하였음
- ‘위험과 이점이 반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1명(23.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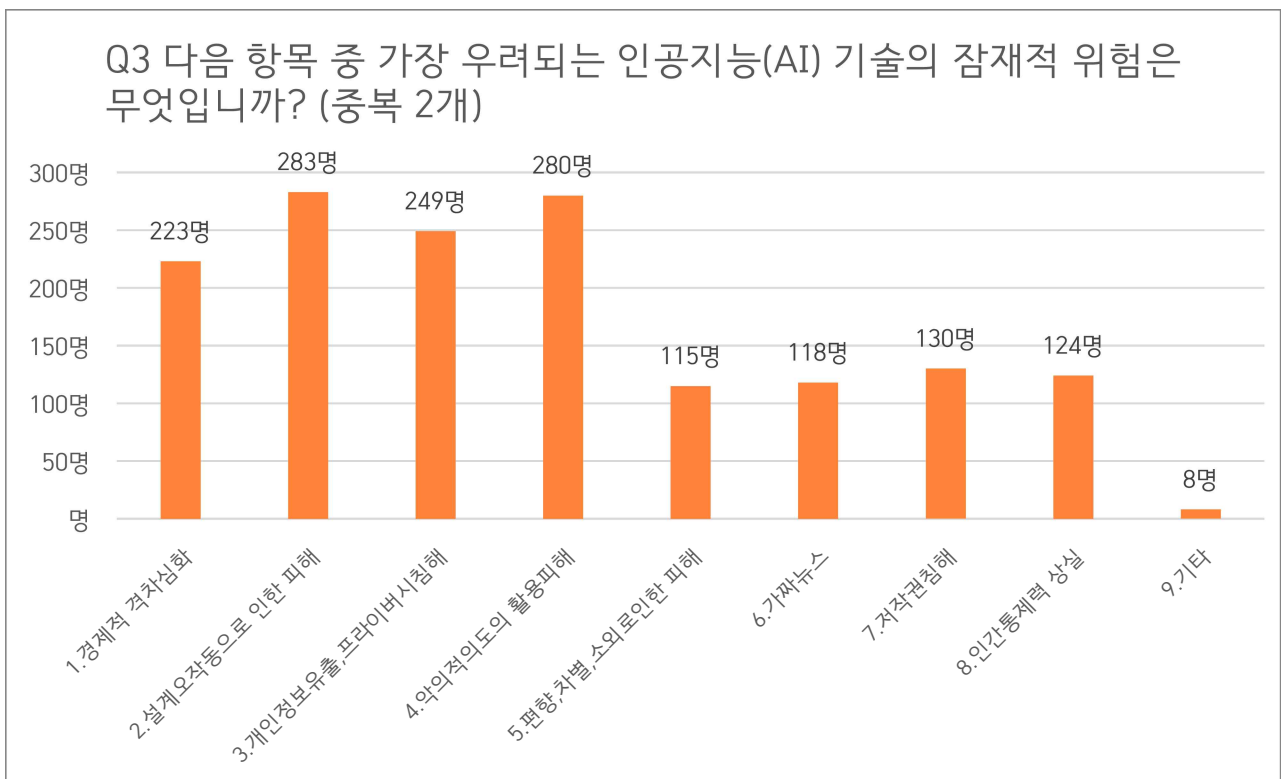
Q2 다음 항목 중 가장 기대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은 무엇입니까?(중복2개)		응답비율
1.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436명	30.6%
2.경제성장과 소득증진	146명	10.2%
3.산업현장의 생산성 혁신	229명	16.0%
4.업무추진의 효율성증진	279명	19.6%
5.건강증진과 수명연장	101명	7.1%
6.개인소통과 연결의 확대	33명	2.3%
7.교육,학습,고용기회의 확대	46명	3.2%
8.과학적난제 해결	96명	6.7%
9.공공의 사회문제 해결	48명	3.4%
10.기타	13명	0.9%
계	1,427명	100.0%

- ‘인공지능(AI)의 잠재적 이점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436명(30.6%)이 ‘1.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이라고 응답하였고, 279명(19.6%)이 ‘4.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이라고 응답하였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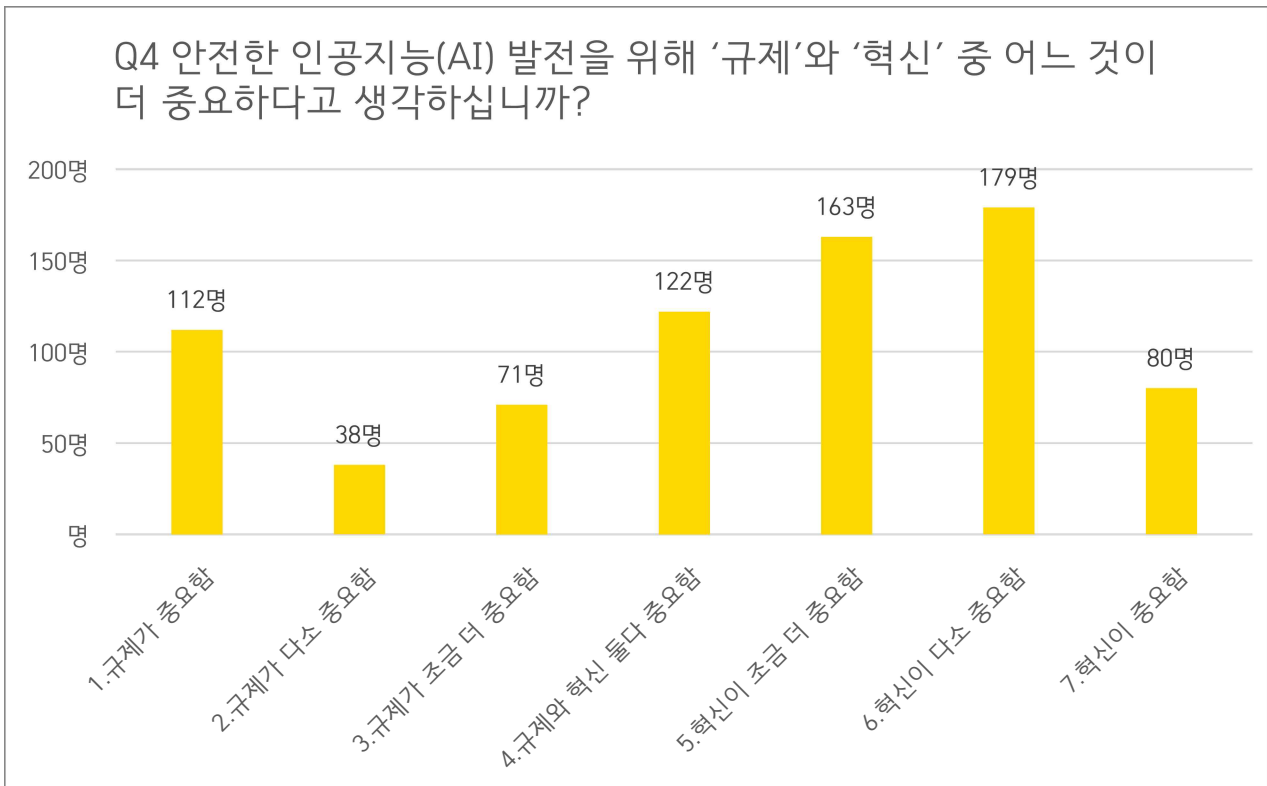
Q3 다음 항목 중 가장 우려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은 무엇입니까? (중복 2개)		응답비율
1.인공지능(AI) 역량에 따른 경제적 격차심화	223명	14.6%
2.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	283명	18.5%
3.개인정보유출,프라이버시 침해	249명	16.3%
4.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	280명	18.3%
5.인공지능의 편향, 차별, 소외 등으로 인한 피해	115명	7.5%
6.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118명	7.7%
7.생성형 AI서비스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130명	8.5%
8.인공지능(AI)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 상실	124명	8.1%
9.기타	8명	0.5%
계	1,530명	100.0%

- ‘인공지능(AI)의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283명(18.5%)가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되는 잠재위험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80명(18.3%)이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를 가장 우려하는 잠재위험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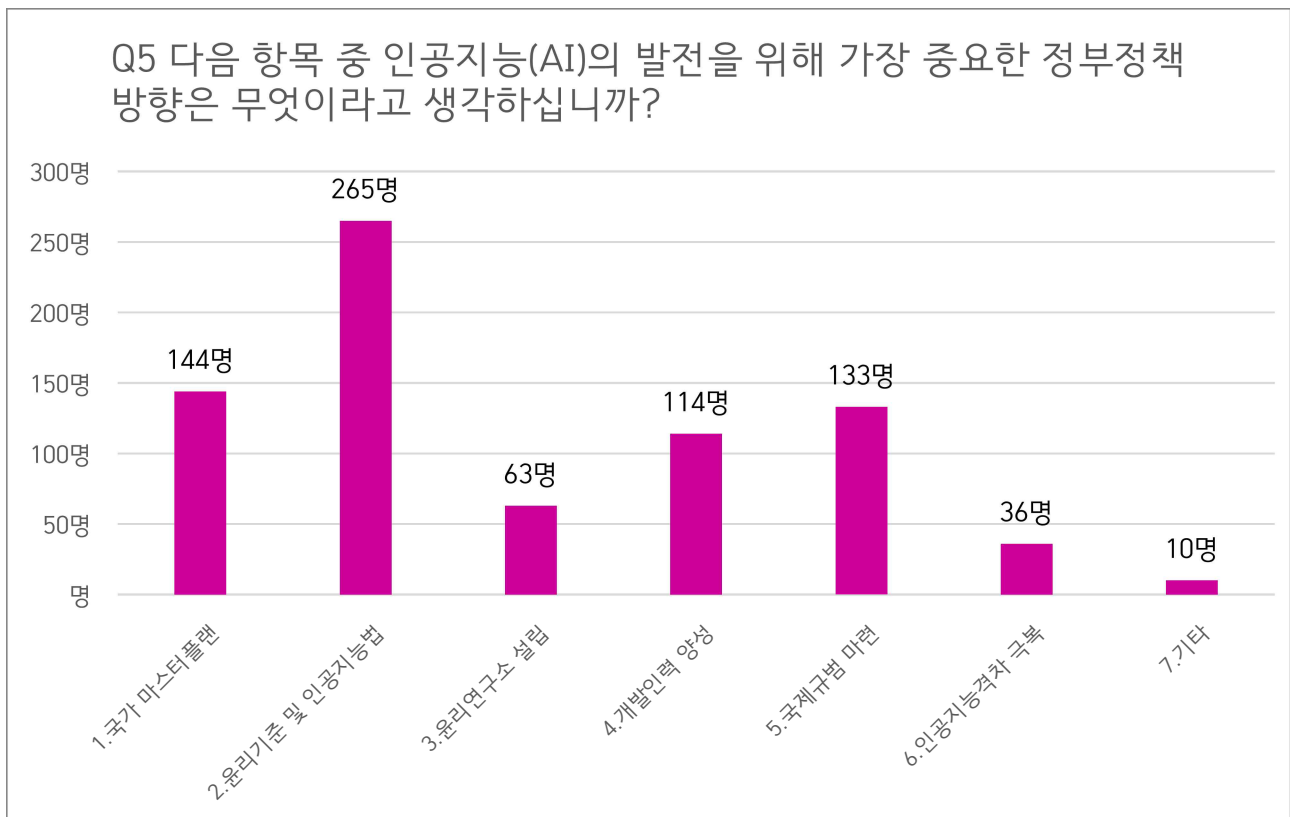
Q4 안전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비율	
1.규제가 중요함	112명	221명	14.6%	28.9%
2.규제가 다소 중요함	38명		5.0%	
3.규제가 조금 더 중요함	71명		9.3%	
4.규제와 혁신 둘다 중요함	122명		15.9%	
5.혁신이 조금 더 중요함	163명	422명	21.3%	55.2%
6.혁신이 다소 중요함	179명		23.4%	
7.혁신이 중요함	80명		10.5%	
계	643명		100.0%	

- '안전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더 중요한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422명(55.2%)가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21명(28.9%)이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Q5 다음 항목 중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비율
1.인공지능(AI) 연구·개발·사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마련	144명	18.8%
2.인공지능(AI)의 윤리기준 및 인공지능법 제정	265명	34.6%
3.인공지능(AI) 윤리연구소 설립 운영	63명	8.2%
4.인공지능(AI) 개발인력 양성	114명	14.9%
5.주요국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AI) 표준화 등의 국제규범 마련	133명	17.4%
6.기업간 인공지능(AI) 격차 극복	36명	4.7%
7.기타	10명	1.3%
계	765명	100.0%

-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265명(34.6%)가 ‘인공지능(AI)의 윤리기준 및 인공지능법 제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44명(18.8%)이 ‘국가 마스터플랜 마련’을 중요한 정부정책방향이라고 응답하였음



구분	수상자	제목	정책 아이디어 요약
최우수	정도범 유화선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 윤리 브리프'(가칭) 발간 및 대국민 확산	■ AI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적 이슈 및 딜레마 발굴 ■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하여 AI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개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AI 개발자 등을 위한 사회·윤리적 방향 제시 ■ 구체적 사례 기반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AI 윤리 브리프'(가칭) 발간 및 공유
우수	김병기	모두를 위한 AI :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력과 정책	■ AI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AI 교육센터 설립, 디지털 기기 지원 프로그램) ■ 포용적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AI 기초 교육, 맞춤형 콘텐츠) ■ 사회적 협력을 통한 AI 이용 격차 해소(정부의 재정적 투자, 민간기업의 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 ■ 정책적 지원 및 제도 마련(AI 이용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AI 접근성 평가 지표 개발) ■ AI 기술 정보와 교육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백단비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 (내AI안전지킴이)	■ AI를 사회적·윤리적 위험의 정도와 파급력에 따라 분류 ■ AI 위험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인 '내AI안전지킴이'를 마련 ■ 위험 사례를 상시적으로 수집·축적·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 ■ 자동 보고 시스템 연계로 고위험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장려	정윤수	차별 없는 AI를 위한 장애인 데이터셋 구축 및 테스트베드 지원 정책	■ 기업의 장애인 데이터 확보 사업 지원 및 AI 학습을 위해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장애인 데이터 적재 ■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단기 일자리 제공 ■ 기업 AI 서비스 개발단계에서 장애인 사용 시에도 안전하게 기능하는지 베타테스트 진행
	김황민 박세연 황성아	AI로 인한 개인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데이터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강화된 데이터 보호 규정 마련,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 알고리즘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투명성 보고서 의무화, 설명가능한 AI 표준정립) ■ 공정성 및 편견 완화(편향성 감사 및 모니터링, 다양한 공공 데이터 세트 마련) ■ 책임 및 거버넌스(AI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규제기관 설립)
	박예진	AI 시스템의 공정성 평가 대시보드 개발안	■ AI 시스템의 편향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K-IAG 시스템' 제안 - AI 시스템의 공정한 평가지표와 대시보드 구축(데이터 균형성, 알고리즘의 예측 일관성, 이해관계자 공정성 평가) - 정기 평가 체계 구축(품질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 AI 구축 단계별 다양한 리소스 지원(시스템 설계, 데이터 수집, 운영 모니터링)

☐ 디지털 심화쟁점 설문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디지털 심화쟁점

디지털 접근성

대국민 설문조사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5,000원 지급

기간: 2024년 8월 7일 ~ 9월 6일

설문조사 바로가기 (Beingdigital.kr)

QR Code

□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디지털
공론장

새로운 디지털 질서 디지털 접근성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기간 | 2024. 8. 7. (수) ~ 9. 6. (금)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 디지털 공론장 (<https://beingdigital.kr>)

주제 | 디지털 접근성 및 대체수단 보장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상금 | 최우수상(50만원, 1명), 우수상(40만원, 2명), 장려상(30만원, 3명)

분야	세부주제
법제도	·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기업자율 준수 방안
교육	· 개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
산업	·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
문화	·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방안 · 디지털 접근성 대체수단 마련 방안

문의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디지털정책협력본부 / kyj9760@kfict.or.kr / 02.2132.20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The Korea Federation of ICT Organizations